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동동 (작자 미상): 46P
- (2) 만분가 (조위): 58P
- (3) 복선화음가 (작자 미상): 62P
- (4) 일동장유가 (김인겸): 66P
- (5) 견흥 (허난설현): 69P
- (6) 성산별곡 (정철): 234P
- (7) 상사별곡 (작자 미상): 249P
- (8) 사노친곡 (이담명): 256P
- (9) 전가추석 (이건창): 305P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덕(德)으란 곰배에 받잡고, 복(福)으란 림배에 받잡고,
 덕(德)이러 복(福)이라 호날, 나사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의 넷물은
 아으 열고자 녹고자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이여 홀로 지내가는구나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의 보름에
 아으 높이 켜
 등불 같구나
 만인(萬人) 비추실 모습이로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한
 아으 만춘(萬春) 달윗고지여
 나미 브롤 즈시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사월 아니 잇어
 아으 오시는구나 피꼬리 새여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 나를 잇고 계썬가
 아으 동동(動動)다리

<사월령>

오월(五月) 오일(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침 약(藥)은
 즈믄 해를 장존(長存)하살
 약(藥)이라 받자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오월령>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바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유월령>

- 작자 미상, 「동동」 -

* 녹사: 고려 시대의 관직명.

* 별해 바론 빗: 벼랑에 버린 빗.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하야 두고
니믈 한 데 녀가져
원(願)을 비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칠월령>

팔월 보름에
아으 가윗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이 가윗날이로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팔월령>

구월(九月) 구일(九日)애
아으 약(藥)이라 먹논 황화(黃化)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하애라
아으 동동(動動)다리

<구월령>

시월에
아으 저머 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시월령>

십일월(十一月)스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汗衫) 두퍼 누워
슬할사라운더
고우닐 스식옴 녀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십일월령>

십이월(十二月)스 분디남가로 갓곤
아으 나잘 반(盤)잇 저* 다호라
니미 알피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프라삽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십이월령>

-작자 미상, 「동동」-

* 저: 젓가락.

* 프라삽노이다: 물었나이다.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백옥경 십이루 어디인가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녀이 되어
 이화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흥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녀이런가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십 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남 다른 입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은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나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일모 수죽에 취수도 냉박구나
 유란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다 썩은 닭의 얼굴 첫 맛도 채 몰라서
 초췌한 이 얼굴이 임 그러 이러한가
 천 길 파도 한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중에 내리나니
 억만 장 못에 빠져 하늘과 땅을 모르겠네
 노나라의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무슨 탓인가
 성문의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었네
 오동나무 저문 비에 외기러기 울며 갈 때
 관산 만 리 길이 눈에 암암 밟히는 듯
 청련시 고쳐 읊고 팔도 한을 스쳐 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망부산전의 석양이 거의로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이 다했는가
 낙화 말이 없고 벽창이 어두우니
 입 노란 새끼 새들 어미도 그리는구나
 팔월 추풍이 덧집을 거뒀 내니
 빈 등지 쌓인 알이 수화(水火)를 못 면하네
 - 조위, 「만분가」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리사별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장 백발이 일야에 길기도 길구나
풍파에 현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강천 지는 해에 주즙이나 무양한가
밀거니 당기거니 염예퇴를 겨우 지나
만리 봉정을 멀리도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부치어 흑룡강에 떨어진 듯
천지 끝이 없고 어안이 무정하니
옥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 것인가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옥량명월을 옛날에 보던 낮빛인 듯
양춘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 넓은 가에 녀조차 흩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가
태상 칠위 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천상 남루에 생적을 울리시며
지하 북풍에 사명을 벗기실까
죽기도 명ियो 살기도 하늘의 뜻이니
진채지역을 성인도 못 면하며
누설비죄*를 군자인들 어찌하리
오월비상이 눈물로 어리는 듯
삼년대한도 원기로 이뤄지도다
초수 남관*이 고금에 한둘이며
백발 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고정 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감고 살고 싶다
창창 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큰 도적도 성히 놀고 백이(伯夷)도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남화* 삼십 편에 이론도 너무 많다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밋다
고국 송추를 꿈에 가 만져 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졌네
장해 음운*에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도깨비와 두역시니가 싫도록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 조위, 「만분가」 -

- * 누설비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포박하는 일.
- * 초수 남관: 초나라 사람 중의가 남관을 쓰고 갇혔다는 고사를 이룸. 벼슬아치가 죄수가 되는 상황을 말함.
- * 백발 황상: 고위직의 늙은 신하. 북송 때 황상이라는 신하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음.
- * 관색성: '옥살이'를 의미하는 별.
- * 고정 의국: 유배지에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충정에.

- * 동릉: 중국 후난성에 있는 땅 이름. 옛날에 큰 도적이 살았다고 함.
- * 남화: 남화진경의 준말. 「장자」의 다른 이름.
- * 남가의 지난 꿈: 남가지몽. 한때의 부귀와 권세는 꿈과 같음을 이르는 말.
- * 장해 음운: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임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첩여 소군이 박명한 몸이런가
 군은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없고
 옥안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 못 보겠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 축루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바람 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희 만겹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되어
 설중에 혼자 피어 침변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없는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기실까
 동풍이 유정하여 암향을 불어 올려
 고결한 이 내 생애 죽림에나 부치고
 빈 낚시대 비스듬히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백구 건너 저어 건덕궁에 가고 지고
 그래도 한 마음은 위궤에 달려 있어
 안개 묻은 도롱이 속에 임 향한 꿈을 깨어
 일편 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잘못 죽거나 옳게 죽거나 이 몸의 탓이던가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복희씨 육십사괘 천지만물 생긴 뜻을
 주공을 꿈에 뵈고 자세히 여쭙고자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네 아니 알겠느냐
 어와 이 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어디 쌓였으며
 비 되고 물이 되어 어디어디 울며 갈까
 아무나 이 내 뜻 알 사람 곧 있으면
 백세교유 만세상감* 하리

- 조위, 「만분가」 -

* 백세교유 만세상감: 백 년을 사귀며 만년을 함께 공감함.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 보소
 불행한 이내 몸이 여자 몸이 되었으니
 이 한님의 증손여요 정 학사의 외손여라
 소학 효경 열여전을 십여세에 외위 내고
 처신범절 행동거지 침선 방적 수 놓기도
 십사세에 통달하니 누가 아나 칭찬하랴
 악한 행실 경계하고 착한 사람 본을 받아
 일동일정 선히 하니 남녀노소 하는 말이
 천강적강 이 소저는 부귀공명 누리리라
 그 얼굴 그 태도는 천만고에 처음이라
 이러하기 칭찬받고 금옥으로 귀히 길러
 십오세가 그에되니 여자유행 법을 좇아
 강호로 출가하니 김 한님의 증손부라
 경계 좋은 화류 중에 삼월망간 우기하니
 등명군 십이병은 군복병치 찬란하고
 전배후배 열두 한님 오색복색 황홀하다
 각사에 가진 시비 좌우로 세의하니
 거리거리 구경꾼이 뉘 아니 칭찬하리
 풍류 남자 오라버님 배행기구 거룩하다
 은안백마 뒤 세우고 청사행 사인교*에
 청사도포 학술안경 대모장도 빗겨 타고
 오동설합 백홍 연죽 이해수층 드리우고
 옥삼전대 요강 타구 수대 규중 차지로다
 수주 약주 가진 안주 복마구중 완득이라
 탄탄 정로 조흔 길로 하루 이틀 사흘 안에
 강호에 득달하니 시택이 어디런고
 주렴속에 잠간 보니 수간모옥 청계상에
 동래서북 가련하다
 반별은 종진마는 가세가 영체하니*
 신행에 허다 하인 밥인들 먹일쏘냐
 합천 지수 팔연판은 쟁반에 붉은 대초
 도리혀 무색하다
 폐을 드린 후에 눈을 감고 앓았으니
 허다한 구경꾼들 서로 일러 하는 말이
 아까울사 저 신부야 곱기 괴히 기른낭자
 간구한 저 시집에 그 고생을 어찌 할고
 극난하기 혼인이라 저대도록 속았는고
 하루밤 지낸 후에 회마 치행* 하올적에
 배행 왔던 오라버님 날을 보고 하는 말씀
 가세가 이러하니 할 일 없다 도로가자
 차마 혼자 못가겠다 어뿐 우리 누이
 이 고생을 어찌하리 두 말 말고 도로 가자
 오라바임 하는 말씀 이 말이 원말이요
 삼중지도 중한 법과 여자유행 읽었으니
 부모 형제 멀어서라 행에 예혼 하올적에
 재물을 의논함이 잇적에 천한바요
 사군자의 경계로다
 수간모옥 적은 집은 구고* 계신 내 집이요

안팎 문중 변화잡제 친부모에 옛집이다
 하늘이 정한 팔자 순종하면 복이 되고
 시택이 간구하나 천생지록 있으리라
 곱고 벗기 매양이며 가도가 심하시도
 구고의 뜻을 받아 효성으로 봉양하면
 도로혀 감동하사 불상 기특 사랑하오
 그런 말씀 다시 말고 초치를 보증하사
 평안지중 환차하사 시택에 간구할 말
 부모님께 부디 마오
 자애 자정 우리 부모 이 말씀 들었으면
 가득이나 늙은 친당* 침식이 불안한대
 선웃음 좋은 말로 시가사를 자랑하여
 부모 마음 편키하오
 오라바님 하는 말씀 아름다운 우리 누이
 오히려 놀랐더니 금일에야 다시보니
 백행이 구비하니 무궁보록 누리리라
 수지부모 귀한 몸을 안보하야 잘있으라

- 작자 미상, 「복선화음가」 -

- * 사인교: 앞뒤에 각각 두 사람씩 모두 네 사람이 메는 가마.
- * 영체하니: 살림이 줄어들어 보잘것없이 되었으니.
- * 치행: 길 떠날 여장을 준비함.
- * 구고: 시부모님.
- * 친당: 부모님.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물 뿌려 작별하고 현사당* 하운 후에
 삼일을 지낸 후에 세수 작객* 예법으로
 부엌으로 내려가니 소슬한 부엌에
 탕관 하나 뿐이로다
 감지에 부모 봉양 무엇으로 하잔말고
 진황시 서방님은 아는 것이 글뿐이요
 시정 모른 늙은 구고* 다만 망영뿐이로다
 하인을 급히 불러 이웃집에 보냈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전의 끈 쌀 아니 주고
 염치없시 또 왔느냐 두말 말고 바빠 가라
 그령저령 하노라니 때가 님의 옷이로다
 자개 함농 열어 놓고 약간 전양* 대어내어
 쌀 사고 반찬 사니 기식이 장식이라*
 앞에 드린 금봉채는 김 장자집 전당하고
 왜포 당포 찬찬 의복 시찬가에 전당하고
 상개구개 두루 불수 앓은 빛에 길게 하고
 공단대단 핫이불은 이 자랑집 영영 방매*
 혼수가 많다한들 글로 어찌 당할소냐
 친정에 약간 구지* 현 시루에 물붓기라
 고운 낭자 대단치마 과거보기 소용이라
 하도 못한 소과 대과 무방 초시 무슨 일고
 사시장춘 고운 이복 그 무엇이 지탕하리
 허리띠 열두 죽은 버선 집기 다 진했내
 여간 쌀되 밥을 진들 부모남편 진지하고
 수삼 노복 난화 주니 저 먹을 것 전혀없다
 한 때 굶어 두 때 설시 치마끈을 줄라맨들
 글로 어찌 당할소냐 눈이 캄캄하올 적에
 헛두통을 앓노라니 사랑에서 무슨 호기
 수청 한님 급히 불러 손님 두분 오셨으니
 술 사오고 점심해라 호령이 등등하니
 시행을 아니하면 사랑에 망신이요
 시행을 하자한들 두 주먹 붙였으니
 생각다 할 일 없어 인두 가왜 전당주고
 술 사오고 양식 팔아 손님 대접 하였던들
 그 무엇이 넉넉하여 지오기를 하잔 말가
 이틀 사흘 유한 손님 만류하기 무슨 일고
 봉제 접빈 지성인들 없는 바에 어이 하리
 밥국이요 차려 놓니 잔 드리는 이 내 마음
 일언일도 한빈지사* 이 모양이 한심하다

- 작자 미상, 「복선화음가」 -

- * 현사당: 사당에 절을 함.
- * 작객: 남의 집에 머물면서 손님 노릇을 함.
- * 구고: 시부모님.
- * 전양: 돈.
- * 기식이 장식이라: 먹고 사는 것이 한숨이라.
- * 방매: 내놓아 팔다.
- * 친정에 약간 구지: 친정에서 약간 가져온 것.
- * 일언일도 한빈지사: 한 길만 가는 가난한 선비.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 형제 진사 급제 가문도 혁혁하다
 딸을 길러 출가하니 혼수범절 치행이야 다시 일러 어떠하리
 춘하추동 사철 의복 너의 생전 유족하다
 바느질에 침선(針線)채며 대마구종(大馬驅從) 춘득이요
 전갈(傳囑)하님 영매로다*

남녀노비 갖았으니 전답인들 아니 주라
 대한불갈(大旱不渴) 좋은 전답 삼백 석 받는 추수(秋收)
 동도지(東賭地) 오천 냥은 요용소치(要用所致) 유여(有餘)
 하다

나의 신행(新行)* 올 때가 도리어 생각난다
 저 건너 괴퐁어미 시집살이 하던 말을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 일러 경계하마
 제일 처음 시집을 제 가산(家産)이 만금(萬金)이라
 마당에 노적(露積)이요 너른 광에 금은이라
 신행하여 오는 날에 가마문을 나서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 신부 행실 바이없다
 다담상(茶啖床)의 허다 음식 생물 먹기 괴이하다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좌중부녀(座中婦女) 어이 알아 떡 조각을 집어 들고
 이도 주고 저도 주고 새댁 행실 전혀 없다
 입구턱에 침이 흘러 연지분도 간데없고
 아까울사 대단(大緞)치마 얼렁덜렁 흉악하다
 신부 행동 그러하니 뉘 아니 외면하리
 삼일을 지낸 후에 형용도 기괴하다
 백주에 낮잠 자기 혼자 앉아 군소리며
 둘이 앉아 흥보기와 문틈으로 손 보기며 담에 올라 시비
 구경

어른 말씀 토 달기와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한 이 둘째로다
 기억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앉노
 앉음앉음 용렬하고 걸음걸음 망측하다
 달음박질하는 때에 너털웃음 무슨 일고
 치마꼬리 헤어지고 비녀 빠져 개가 문다
 허리띠 언다 두고 붉은 허리 드러내노
 어른 걱정 하올 적에 쪽박 함박 드던지며
 성내어 술 때 닭기 독살 부러 그릇 깨기
 등잔 뒤에 넘보기며 가만가만 말뚝 세워
 아니 한 말 지어내어 일가 간에 이간질과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적(盜賊)하기 예사로다
 그중에 행실 보소 악한 사람 부동(符同)하여 착한 사람
 흥보기와

제 처신 그러하니 남편인들 귀할쏘냐
 금슬 좋자 살풀이며 무병(無病)하라 푸닥거리
 의복 주고 금전 주어 아들 낳고 부귀하기
 정성껏 빌어 보소 산에 올라 산제(山祭)하고 절에 가서
 공양(供養)한들

제 인심이 그러하니 귀신인들 도울쏘냐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없을쏘냐
 딸아 딸아 아기 딸아, 복선화음(福善禍淫) 하는 법이 이를

보니 분명하다

저 건너 괴퐁어미 너도 흡연 안 보았나
 허다 세간 포진천물(暴殄天物)* 남용남식(濫用濫食)* 하고
 나서 그 모양이 되었구나
 딸아 딸아 고명딸아 괴퐁어미 경계하고
 너의 어미 살을 받아 세금 결시 이른 말은 부디 각골(刻
 骨) 명심하라
 딸아 딸아 울지 말고 부디부디 잘 가거라
 효봉구고(孝奉舅姑)* 순승군자(順承君子)* 동기우애(同氣
 友愛) 지친화목(至親和睦)*
 기쁜 소식 듣기오면 명년 삼월 화류시*에 모녀상봉 하느
 니라

- 작자 미상, 「복선화음가」 -

* 대마구종 춘득이요 전갈하님 영매로다: 큰 말의 고삐를 잡고
 가는 하인은 춘득이요, 소식을 전해 주는 계집종은 영매로다. 화자
 의 딸이 시집갈 때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여러 하인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임.

* 대한불갈: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 신행: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
 으로 감.

* 부동하여: 그른 일에 어울려 한통속이 되어.

* 복선화음: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림.

* 포진천물: 물건을 함부로 쓰고도 아까운 줄 모름.

* 남용남식: 지나치게 쓰고 먹음.

* 효봉구고: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김

* 순승군자: 남편을 순순히 따름.

* 지친화목: 가까운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냄.

* 화류시: 화전놀이 할 때.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풍(長風)에 돛을 달고, 육선(六船)이 함께 떠나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해산(海山)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海口)를 열른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 지우고
고국(故國)을 돌아보니 야색(夜色)이 창망(滄茫)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沿海) 각진포(各鎭浦)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별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叉樞)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앞일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東萊) 산이 눈썹 같고
동남(東南)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이없어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데를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水疾)하야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앞네
다행할사 종사상(從事相)은 태연히 앉았구나
배 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對馬島)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다시 일어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예선(曳船)차로 모두 왔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포구(浦口)로 들어가서 좌우를 돌아보니,
봉만(峯巒)이 삭립(削立)하여 경치가 기절(奇絶)하다*
송삼죽백(松杉竹栢) 귤유등(橘柚橙)감 다 모두 동청(冬靑)일세

왜봉행(倭奉行)* 여섯 놈이 금도청(禁徒廳)에 앉았구나
인가(人家)가 소조(蕭條)하여 여기 세 집 저기 네 집
합(合)하여 세계 되면, 사오십오(四五十戶) 더 아니라
집 형상(形狀)이 궁흉(穹匈)하여 노적(露積)더미 같고나야
곳 보는 왜인(倭人)들이 산에 앉아 구경한다
그중에 사나이는 머리를 깎았으며,
꼭뒤만 조금 남겨 고추상투 하였으며
발 벗고 바지 벗고 칼 하나만 차 있으며,
왜녀(倭女)의 치장(治裝)들은 머리는 아니 깎고,
밀기름 듬뿍 발라 뒤쪽에 잡아매어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며 있고,
그 끝은 휘어다가 비녀를 꽂았으며,
무론 노소(毋論老少) 귀천(貴賤)하고, 얼레빗을 꽂았구나
의복(衣服)을 보아하니, 무 없는 두루마기
한 동 단 막은 소매 남녀(男女) 없이 한 가지요,
넓고 큰 접은 띠를 느직이 둘러 띠고,
일용 범백(日用凡百)* 온갖 것을 가슴속에 다 품었다
남편(男便) 있는 계집들은 이에 까만 칠을 하고,
뒤쪽에 띠를 매고,
과부(寡婦) 처녀(處女) 갓난애는 앞으로 띠를 매고,
이에 칠을 앉았구나
외충 낸 고은 집신 남녀(男女) 없이 신었구나
비단 옷에 성적(成赤)하고, 곳곳이 앉았고나
그중의 두 계집이 새하얀 설면자(雪綿子)로
머리 싸고 앉았거늘 통사(通事)*더러 물어보니,
“벼슬 있는 사람들의 처첩(妻妾)이라” 하는구나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기절하다: 기이하다.

* 왜봉행: 통신사를 맞으러 나온 일본인.

* 일용범백: 늘 쓰던 물건.

* 통사: 통역사.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십팔 일 발행할 때 수백 필 금안 준마(金鞍駿馬)
 중하관을 다 태우니 기구도 장하구나
 각방의 노자(奴子)들도 호사가 참람(僭濫)하다*
 좌우에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 받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 기구 한 놈 들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메어
 한 사람이 거느린 수 여덟씩 들었구나
 나하고 삼 문사(文士)는 가마 타고 먼저 가니
 금안(金鞍) 지은 재고 큰 말 기(旗) 든 말이 앞에 섰다
 여염도 왕왕 있고 혼할 손 대밭이다
 토지가 기름져서 전답이 매우 좋네
 이십 리 실상사가 삼 사상 조복(朝服)할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인민이 부려(富麗)하기 대판만은 못하여도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관사(館舍)는 본룡사(本龍寺)요 오층 문루 위에
 여남은 구리 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수석도 기절(奇絶)하고, 죽수(竹樹)도 유취 있네
 왜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없다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옥야천리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플손
 이리 좋은 천부금탕 왜놈의 기물되어
 칭제 칭왕하고 전자 전손하니
 개돼지 같은 비린 유를 다 모두 소탕하고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 땅 만들어서
 왕화에 목욕(沐浴) 감겨 예의국 만들고자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참람하다: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뒤편: 산뒀.
- * 교군: 가마꾼.
- * 부려하다: 부유하고 아름답다.

십삼일(十三日) 발행(發行)하여 육칠 리(六七里)는 지나가니,
 예서부터 상근령(箱根嶺)을 사십 리(四十里)를 올라가니,
 송삼(松杉)이 무밀(茂密)하고, 총죽(叢竹)이 삼목(森木)하여*
 영(嶺)은 그리 험(險)치 않고, 이따금 마을 있네
 이십 리(二十里) 다옥(茶屋)에서 잠깐 쉬어 올라가니,
 음식(飲食) 파는 계집들이 차 그릇 손에 들고,
 무엇이랴 지저귀며, 따라오며 “사라” 하니
 이십 리(二十里)는 또 올라서 영(嶺) 위에 앉아 보니,
 어제는 부사산(富士山)이 그리 높지 아녜더니,
 높이 올라 바라보니, 배가 넘게 더 높으니,
 대저(大抵) 한 상근령(箱根嶺)이 아국(我國)*으로 의논(議
 論)하면,

조령(鳥嶺)과 상하(上下)하되*, 예서 부산(釜山) 바라보니,
 서너 층이 더한지라 백 리(百里)나 남직하다
 해동(海東)의 명산중(名山中)에 제일(第一)이라 하리로다.
 영(嶺) 북편(北便) 돌아보니, 상근택(箱根澤) 물이 있어
 호호(浩浩)하고 탕탕(蕩蕩)하여 장광(長廣)이 칠십 리(七
 十里)라

이리 높은 절정(絶頂) 위에 이러한 크나큰 물
 바다처럼 깊고 멀어 그 빛이 심벽(深碧)하여
 남도(南道) 바다 마치 같고, 어별 해삼(魚鱖海蔘) 갖춰 있고,
 왕래(往來)하는 돛 단 배가 이리 가고 저리 가니,
 장(壯)함도 장(壯)할시고, 천지간(天地間) 기관(奇觀)이다
 “우리나라 공갈못을 장(壯)하다” 하거니와

여기 비겨 보게 되면, 자취물과 다를손가?
 백두산 대택수(大澤水)와 한라산 백록담(白鹿潭)이
 이와 어떠하겠는가? 아무러나 이상(異常)하다*
 관소(館所)로 내려가니, 호수(湖水)를 등지고서
 여염(閭閻)이 즐비(櫛比)하니, 승지(勝地)라 하겠구나
 점심 먹고 내다르니, 왼편으로 호수(湖水) 끼고,
 영(嶺)으로 내려갈 때 뒤편*이 일어나서

바람이 장(壯)한지라 물결이 뒀을 덮어
 번개처럼 나는 듯이 사면(四面)으로 불어오니
 길에서 지척(咫尺)이라
 연염(煙焰)이 창천(漲天)하니, 만일(萬一) 더디 가다가는
 타 죽기 쉬운지라

교군(轎軍)*을 재촉하여 급급(急急)히 내려갈 때
 삼십 리(三十里) 겨우 가니, 금양산(金陽山)이 아래로다
 양수(兩水)가 합금(合衿)하여 폭포(瀑布)되어 내려가네
 전인(前人)의 일기중(日記中)에 쌍유추(雙乳湫)가 여기로다
 상모주(相模州) 소전원(小田原)을 해 질 때에 들어가니,
 태수(太守)가 사는 데라 인민도 부려(富麗)*하다
 인물(人物)이 초준(峭俊)하고, 미색(美色)도 많을시고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송삼이 무밀하고 총죽이 삼목하여: 소나무와 삼나무가 무성하고,
 대나무가 뻗뻗하여.

* 아국: 조선.

* 상하하되: 유사하되.

* 이상하다: 색다르다.

[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동나무가 역산의 양지에서 자라나
추위와 그늘에서 몇 해를 견디었을까요.
다행히 시대에 드문 장인을 만나
베어내 다듬어 거문고로 만들었습니다.
거문고를 만들어 한 곡조를 연주하니
이 세상에는 그 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래서 광릉산 묘한 곡조가
예로부터 묻히고 말았나 봅니다.

<제1수>

봉황이 단혈에서 나오니
아홉 겹 무늬가 찬란히 빛납니다.
성덕을 보여 주며 높이도 날고
목청 뿜아 아침별에 울어대네요.
벼와 기장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 열매만이 먹이랍니다.
어찌하여 오동나무 가지에는
새매와 솔개미만 서식할까요.

<제2수>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면지를 털어 내면 맑은 윤이 났었죠.
봉황새 한 쌍이 마주 보게 수놓여 있어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오늘 아침 임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임의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 않지만
다른 여인 치맛감으론 주지 마세요.

<제3수>

보배스러운 순금으로
반달 모양 노리개를 만들었지요.
시집을 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오늘 길 떠나시는 임에게 드리오니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새 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 주지 마세요.

<제4수>

- 허난설헌, 「견홍」 -

[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에 최경창과 백광훈 무리들이
성당*을 범 삼아 시를 익히니
적막하기 그지없던 대아의 소리가
이들을 만나 금옥 같은 소리를 얻었네요.
낮은 벼슬 광록에 곤궁하고
변방의 고을살이에 땀나무 쌓기는 시름겹습니다.
나이와 지위가 모두 영락했으니*
이제야 시가 사람을 곤궁하게 함을 믿겠습니다.

<제5수>

선인이 색색의 아름다운 봉황새 타고
밤중에 조원궁에 내려오시네요.
붉은 깃발이 바다 구름에 떨어치고
무지개 옷이 봄바람에 날려 소리를 냅니다.
요지의 봉우리에서 나를 맞으며
내게 유하주를 마시게 했지요.
내게 녹옥장을 빌려주면서
나를 부용봉에 오르게 했습니다.

<제6수>

한 손님이 먼 곳에서부터
내게 잉어 두 마리를 전해주었습니다.
배를 갈라 무엇을 보았나 하니
그 속에 편지가 들어 있었죠.
첫마디는 “늘 그리워한다”라고 하였고
아래에는 안부를 물어 왔네요.
사연을 읽어보니 임의 뜻을 알겠습니다.
떨어지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요.

<제7수>

꽃다운 나무는 우거져 새파랗고
무성한 잎은 가지런히 피었습니다.
봄이라 만물은 어여뻐 꽃피우는데
나만 홀로 슬픔이 밀려오네요.
벽 위에는 오악의 그림을 걸고
책상머리엔 참동계가 있습니다.
연단* 공부 혹시나 이루어지면
돌아가서 창오제 배알하겠습니다*.

<제8수>

- 허난설헌, 「견홍」 -

- * 성당: 당나라 시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
- * 영락했으니: 보잘것없이 되었으니.
- * 연단: 연명 장수를 위해 수련하는 방법.
- * 배알하겠습니다: 찾아가 뵈겠습니다.

[6-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지날 손[喀]이 성산(星山)에 머물면서
 서하당(棲霞堂) 식영정(息影亭) 주인아 내 말 듣소.
 인생 세간(世間)에 좋은 일 하건마는
 어찌한 강산을 갈수록 낫다 여겨
 적막 산중에 들고 아니 나시는고
 송근(松根)을 다시 썰고 죽상(竹床)에 자리 보아
 잠깐 올라앉아 어떤고 다시 보니
 천변(天邊)에 떴는 구름 서석(瑞石)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고
 창계(滄溪) 흰 물결이 정자(亭子) 앞에 돌렸으니
 천손운금(天孫雲錦)*을 뒤라서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치는 듯 헌사하기도 헌사할샤
 산중에 책력(冊曆)이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친 경(景)이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매창(梅窓) 아침 별에 향기에 잠을 깨니
 선옹(仙翁)의 할 일이 곧 없도 아니하다
 을 밀 양지 편에 외씨를 뿌려 두고
 매거니 돋우거니 비 온 김에 다루어 내니
 청문고사(靑門故事)를 이제도 있다 하리
 망혜(芒鞋)를 죄어 신고 죽장(竹杖)을 흘짚으니
 도화(桃花) 핀 시내 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이었어라
 닦고 닦은 명경(明鏡) 중(中) 절로 그린 석병풍(石屏風)
 그림자 벗을 삼아 서하(西河)로 함께 가니
 도원(道源)은 어드메오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 정철, 「성산별곡」 -

* 천손운금: 직녀가 짠, 구름 같은 비단.

* 선간: 신선이 사는 세계.

[6-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풍(南風)이 건듯 부러 녹음(綠陰)을 헤터 내니
 절(節) 아는 괴쫂리는 어드러셔 오뎡던고
 회황(羲皇) 벼개 우히 풋즈을 얼푼 썸니
 공중(空中) 저즌 난간(欄干) 물 우히 썸 잇고야
 마의(麻衣)를 니피 츠고 갈건(葛巾)을 기우 쓰고
 구브락 비기락 보논 거시 고기로다
 흐르밤 비뜨운의 흥백련(紅白蓮)이 섯거피니
 브람뜨 업서셔 만산(萬山)이 향기로다
 염계(廉溪)를 마조 보와 태극(太極)을 못즈논 듯
 태을 진인(太乙眞人)이 옥자(玉字)를 헤헛논 듯
 노자암(鷓鴣巖) 건너보며 자미탄(紫微灘) 겨터 두고
 장송(長松)을 차일(遮日)사마 석경(石逕)의 안자 하니
 인간(人間) 유월(六月)이 여기는 삼추(三秋)로다
 청강(淸江)의 썸논 울히 백사(白沙)의 울마 안자
 백구(白鷗)를 벳을 삼고 즘 썸 줄 모르나니
 무심(無心)코 한가(閑暇)흐미 주인(主人)과 엇더하니
 오동(梧桐) 서리들이 사경(四更)의 도다 오니
 천암 만학(千巖萬壑)이 나진들 그러홀가
 호주(湖洲) 수정궁(水晶宮)을 누라셔 움겨 온고
 은하(銀河)를 썸여 광한전(廣寒殿)의 올랐논 듯
 싹 마즌 늘근 솔란 조대(釣臺)에 세여 두고
 그 아래 비를 썸워 갈 대로 더더 두니
 홍료화(紅蓼花) 백빈주(白蘋洲) 어느 스이 디나관디
 환벽당(環碧堂) 용(龍)의 소히 빗머리에 다하세라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쇼머기는 아히들이
 석양(夕陽)의 어위 계워 단적(短笛)을 빗기부니
 물 아래 즘진 용(龍)이 즘 썸야 니러날 듯
 너뜨에 나온 학(鶴)이 제 기술 더더 두고 반공(半空)의
 소소 썸 듯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추칠월(秋七月)이 도타 호디
 팔월(八月) 십오야(十五夜)를 모다 엇디 과흐논고
 섬운(纖雲)이 사권(四捲)흐고 물결이 채잔 적의
 하늘의 도단 돌이 술 우히 걸려거든
 잡다가 싸던 줄이 적선(謫仙)이 한스홀샤

- 정철, 「성산별곡」 -

[6-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삭풍(朔風)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公)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내었도다
 잎 여울 덮어 얼어 외나무다리 비졌는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山翁)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萬古)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聖賢)도 많거니와 호걸(豪傑)도 많고 많아라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과 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허유(許由)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 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날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어느 만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거문고 줄에 얹어 풍입송(風入松) 타자꾸나
 손인동 주인인동 다 잊어버렸어라
 공중에 떴는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瑤臺) 월하(月下)에 행여 아니 만났는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경요굴: 아름다운 구슬로 만들었다는 달나라의 동굴.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이별(人間離別) 만사 중(萬事中)의 독수공방(獨守空房)* 더욱 쉽다

상사불견(相思不見) 이내 진정(眞情) 그 뉘 알리
 맺힌 설움 이렇저렇 헛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 못 보니 가슴 답답
 어린 양자(樣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듣고 지고 임의 소리 보고지고 임의 얼굴
 비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보게 해 주소서
 전생차생(前生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린 상사(相思) 한데 만나 잊지 말자 백년 기약(百年期約)
 죽지 말고 안데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盟誓)
 천금 주옥(千金珠玉) 귀 박이요 세사(世事) 일불 관계하라*
 근원(根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피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게 뉘 알리
 화옹(化翁)조차 시샘하고 귀신(鬼神)조차 희짓는다
 일조 낭군(一朝郎君)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絶)하니*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無情歲月) 절로 간다
 소년 청춘(少年青春) 다 보내고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
 (空老)로다*

오동 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며
 녹음방초(綠陰芳草)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 가노
 이내 상사 알으시면 임도 응당 느끼리라
 독수공방 흘러 앓아 반야 잔등(半夜殘燈) 벗을 삼아
 일촌간장(一寸肝腸)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가슴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라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교태(嬌態) 겨워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맨다
 지척(咫尺) 동방(洞房) 천리(千里) 되어 바라보니 암암(暗暗)
 하도다

만첩 천희(萬妾千姬) 그대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라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라
 산은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重重) 흘러 근원 되니
 천지 인간(天地人間)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것다
 초로(草路) 같은 이내 인생(人生)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불어 굶은비 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虛事)로다
 공방 미인(空房美人) 독상사(獨相思)는 예로부터 있건마는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노류장화(路柳牆花)*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산계야목(山鷄野鶩) 길을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가는 길이 자취 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 작자 미상, 「상사별곡」 -

- * 독수공방: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 * 양자: 얼굴의 생긴 모양.
- * 세상 일불 관계하라: 세상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겠다.
- * 돈절하니: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지니.
- * 옥빈홍안 공노로다: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의 아름다운 젊은이가 헛되이 늙었도다.
- * 노류장화: 기생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니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같이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뵈오려뇨.

<제1수>

친년(親年)*은 칠십오(七十五)이요 영로(嶺路)*는 수천리
(數千里)오

돌아갈 기약(期約)은 갈수록 아득하다.
아마도 잠 없는 중야(中夜)에 눈물겨워 서러워라.

<제2수>

길이 멀다하나 나서면 아니 가겠느냐
말이 파리하나 타면 아니 갈 것이냐
가고 난 후(後)면 노모귀령(老母歸寧)*할 일이되 천진우위
(遄臻于衛)인마는 불하유해(不瑕有害)라 이를 저어 하노라.

<제3수>

적리광음(謫裡光陰)은 四年(사년)이 벌써 되고 천외가향
(天外家鄉)은 만리(萬里)에 아득하니

몸이 못 가거든 기별(奇別)이나 들었으면
아무리 척홀첨망(陟屹瞻望)*을 말려 한들 어쩔손가.

<제4수>

임행밀밀봉(臨行密密縫) 의공지지귀(意恐遲遲歸) 수언춘
초심(誰言寸草心) 보득삼춘휘(報得三春暉)

인정(人情)이 간절하니 귀신(鬼神)인들 아니 울까
지금의 이 시(詩) 이 뜻은 읊을수록 슬퍼구나.

<제5수>

기러기 아니 나니 편지를 뉘 전하리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룰손가
매일에 노친 얼굴이 눈에 삼삼하야라*.

<제6수>

- 이담명, 「사노친곡」 -

- * 친년: 부모의 나이.
- * 영로: 고갯길.
- * 노모귀령: 노모가 편안하게 돌아가심.
- * 척홀첨망: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봄.
- * 삼삼하야라: 잊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듯 또렷하여라.

[8-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산(東山)에 올라보니 고국(故國)도 멀서이고
태행(太行)이 어드메오 구름이 머물러라
갈수록 애일촌심(愛日寸心)이 여림심연(如臨深淵)* 하여라
<제7수>

천애(天涯) 절역(絶域)의 새해를 네 번 보니
촌초심정(寸草心情)은 이르지도 말려니와
아마도 학발의려(鶴髮倚閭)*를 어이하야 위로(위로)할꼬.
<제8수>

유난사죄(有難赦罪) 난의질(難醫疾) 위불충신(爲不忠臣)
불효남(不孝男)
소재(蘇齋)의 이 구(句)를 이제록 불작시면
남이 아니라 나를 이른 말이로세.
<제9수>

내 죄를 아옴거니 유찬(流竄)이 박벌(薄罰)이라*
도처(致處)에 성은(聖恩)을 어이 하여 갓사올고
노친(老親)도 풀어 헤치고 하 그려 마오소서.
<제10수>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일월이 가까우샤 하토(下土)에 비추시니
아모라타 우리 모자지정을 살피실 제 없사오라.
<제11수>

까치 울거나 거미 나리거나 등화(燈火) 열리거나
아마도 반가운 기별을 어느 때 들어려뇨.
<제12수>
- 이담명, 「사노친곡」 -

- * 여림심연: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르는 말.
- * 학발의려: 하얗게 머리가 센 어머니가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 * 유찬이 박벌이라: 귀양이 가벼운 벌이라.

[9-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 모인 곳이라
 철따라 명절을 챙기지만
 시골은 빈천한 사람들
 추석 같은 명절 또 있으랴!

가을날 햇빛이 맑게 비치고
 가을밤 달이 밝게 떠서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

보이나니 사방으로 트인 들판에
 좋은 곡식 이삭을 드리우니
 올려는 벌써 타작마당 올랐고
 콩과 팥도 따로 거두고
 마당가에 해바라기씨 털어내고
 뒤뜰에선 알밤을 깐다네.

등그런 질화로에
 고주배기* 별절게 타올라
 밥 짓고 국 끓여서
 온 가족 실컷 먹고 마시네
 한번 배가 부르매 기분이 늘어져서
 떠들썩 이런저런 이야기꽃 피네.

지난해 큰 흉년 만났을 쟈
 아주 죽어 못 살 듯싶더니만
 금년엔 대풍이 들었어
 하늘이 사람을 영영 죽이실 리 있겠나.

북처럼 불룩하지 않은 배가 한스럽고
 양쪽으로 찢어지지 않는 입이 한스럽도다
 열흘 양식 하루에 먹어 치워
 오래 주렸던 창자 원 없이 채워보자.

아랫목에 앉으신 어르신네
 그만 떠들라하고 이르시길,
 백성의 삶이란 게 참으로 고단하니
 가득 차서 넘치는 걸 꺼리는 게 만물의 이치니라.

오늘 실컷 배부르다고
 굶주리던 옛날을 잊지 마라.
 나는 늙은이라 겪은 일이 많으니
 너무 먹다간 배탈나느니라.

- 이견창, 「전가추석」 -

* 고주배기: 뽕감으로 사용한 나무 그루터기.

[9-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마을엔 막걸리 거르고
 뒷마을엔 누렁소 잡는데
 홀로 서촌의 어느 집에
 싫디싫게 밤새도록 곡을 하려고.
 곡하는 이 누군가 물어보니
 유복자 안은 흠어들어라네.

서방님이 살아 계실 적엔
 두 식구가 이 한 집 지켜
 문전의 명석만 한 땅에서
 매해 벌어서 근근이 풀칠은 하였는데
 지난해 가을 서리 일찍 내려
 비로 쓴 듯 콩 반쪽도 구경 못 했다고.
 겨와 밀기울에 송기를 섞어 먹어도
 겨울나기 부족하였지요.

봄이 오자 부잣집에 가서
 나락을 구걸하여 한 줌 얻어다가
 한 톨도 먹기 아까워
 고스란히 간직했다 종자로 쓰고 나니
 근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위와 창자 날로 오그라들고

끓거나 먹거나 함께하였는데
 이 몸은 나무등치처럼 모진지……
 홀연히 서방님만 저세상으로 보내어
 앞산 기슭에 내 손으로 묻었다오.

앞산에 묻힌 사람 썩어갈 때에
 눈에 심은 곡식은 익어 갔다오.
 벼 이삭 익은들 무엇하리오?
 차마 보지 못해 문 닫고 들어앉아
 차라리 따라 죽자 해도
 젓먹이 어린것 두고 어이하리……

이 아이 비록 아버를 모르지만
 단 하나 서방님의 혈육이니
 아이를 품에 안고 영위 앞에 고하다가
 말을 잊지 못하고 혼절하였는데
 문득 문을 두들기는 소리
 아전이 세곡 바치라 외쳐 댈다.

- 이견창, 「전가추석」 -